

행복

어느덧 사랑방에 들어와 함께한 시간이 5년 되어 갑니다. 네????!! 이제 부터 시작이라구요...??! ^^;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요즘 계속 들으며 다짐하는 찬양인데, 함께 나누고 싶어 적어봅니다.

행복

- 손경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 가진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힘 나눠주며 사는 삶 /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래오.

눈물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 억울한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래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래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선물 / 이것이 행복 행복이래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 이것이 행복 이래오.

화목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필연적이지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성령님의 선물을 순종함으로 받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수 있었을까요? 신성을 포기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에 순종하셨던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은 행복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행복한 분들을 만나 감사합니다.

요즘 전 몸은 좀 피곤하고 다크씨클이 무릎까지 내려와도 행복한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갈 때 행복의 꽃이 만개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겐 어린이학교에서 암송했던 역대하 말씀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같
았습니다.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 역대하7장:14 >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차태옥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시편 47편

인도 : 정재훈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미얀마를 위한 기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에서 군경의 유혈폭력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7세 여자 아이가 군경이 쏜 총에 맞아 희생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 내의 군경은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루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 학교와 공동체 식구들을 코로나19로 부터 보호해주시고, 공동체 사역이 더욱 힘을 얻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소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체들을 위한 기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지체들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심한 코로나에도 공동체 지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특히 공동체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

오랜 만에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자연이 더욱 생명력을 뽐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공동체 학교는 모두 등교를 했습니다. 멧쟁이 학생들도 등교하여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모두 받고 들어왔기에 주말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당번을 짜서 돌아가며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섬김의 손길에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자료는 각 가정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세족목요일예배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형식과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 다음 주일은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예배는 3번(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30분)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 사순절 연속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지역별사랑방 조직을 발표합니다.(주보 '지체들의 삶'란) 이후 새로운 방조직에 따라 연락하고 교제하십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3 호

2021년 3월 2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광야에 마련해 주신 식탁 (예수원 이야기)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냐?”(시편 78:19)

한국의 어느 산 속, 숲이 울창한 계곡에 파묻혀 있는 색다른 곳 “예수원”을 찾아오려면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여행한 후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 한다. 이 예수원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월을 기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마련해 주신 식탁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광야로 나가야 하지요?” “도대체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하지요?” 예수원의 초창기에 비슷한 질문과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노동과 물질과 기도를 함께 나누면 하나님을 위해 아주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 지금 우리가 세계의 평화와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여러 사람과 함께 드리게 되면, 우리는 더 큰 통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 잘 상달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되겠지. 게다가 당신은 집안 일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대전적 신부와 현재인 사모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하지요?” 라고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아 오지 않을까 걱정했고, 그다음에는 혼자서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내 성품을 생각하고는 도리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걱정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귀한 형제자매들을 예수원 가족으로 보내주셨다. 지금은 25명의 정규 회원과, 32명의 수련자들,

28명의 아이들 있고, 최근에 서른다섯 번째로 시작한 지원자 반에는 21명의 지원자들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 나갈 수 있었고, 우리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해 나갈 수 있었다. 이곳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운영하지요?”라고 물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보내 주셨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보내 주시지는 않았지만 알맞은 때에 알맞은 금액을 지혜롭게 보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잘 못 들었다는 것과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자급자족의 정도를 늘려가게 하였고, 개인과 그룹과 다른 많은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셨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결코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오신 수많은 기적들 앞에 경이감을 느낀다. 이것은 내가 예수원의 이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기적이다. 우리는 이 모든 세월을 기적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광야에 마련해 주신 식탁이다.

현재인 지금, 양혜원 옮김 『예수원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

한주간의 말씀

세 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마가복음 11장 20-33절

제목 :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권한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96 291 270 286 361 364 322

20-24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관찰: 전날에 예수께서 저주하였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라)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의심없이 받을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 지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해석: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적용: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믿음을 구하자.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믿음을 갖자.

25-26: 너희는 기도할 때 용서하여라

관찰: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해석: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 이루어 질 것임을 믿고 기도하라.

적용: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신앙으로) 실천해보자.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연락해 보자.

7-33 성전 뜰에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예수의 권한을 묻다.

관찰: 그들(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이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는 물음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을 물으니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어떤 답을 해도 불리할 것 같으니 모르겠다는 대답에 예수님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석: 신앙을 정치적, 신념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오심은 비밀스러운 것으로 선택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

적용: 신앙을 나의 신념(옳음)을 위해 (정치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자.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자.

2021년 사랑방 조직

□ 과정별사랑방 (디아코니아사랑방) - 최기찬 노미현, 정태일 이월영, 정재훈 장영미, 정다운, 해 은 조소연, 박광희 이근자, 권재만 차태옥, 이용신 진정행, 이어람 이어진, 이돈희, 조익, 장성아

□ 과제별사랑방 (그루터기사랑방) - 김중필 이현숙, 박태규 전향옥, 정낙귀 정혜정, 나송주 이윤희, 이승호, 전선희, 장미숙

□ 지역별사랑방

무림사랑방 - (담당/ 이용신 진정행) 이종욱, 주인순, 정동은, 김형배 오강자, 서금선, 정해분, 김연수, 김지식, 오봉순 박무상(*조영길), 임준식, 김정호, 박태름, 윤화자, 인지명, 심향구, 이경희, 홍연숙

01 사랑방 - (담당/ 최기찬 전도사 /) 최창수 정혜옥, 홍삼성 임명숙, 임상희, 김용필, 채영학 박경희, 채영대 장지영, 임정주 서지은, 이시우 김은정, 신수호 김혜연, 최종곤 천현정, 김영희(p),

02 사랑방 - (교역자/ 정재훈 전도사 /) 이충환 최연우, 박현수 김영희, 임은숙, 홍정길 이창윤 양일자, 박동인 윤경옥, 홍슬기 전혜리, 이재훈 김다솔, 허 준 손민희, *김중명

03 사랑방 - (교역자/ 공화 전도사 /) 김일구 정성미, 신기성, 윤호중 하경임, 최상득 백성복, 배덕호 김미임, 유재혁 김혜경, 구경본 한혜정, 권명숙, 권오열 송민정, 김영명 한누리, 양원준 박지은, 한미선, 이미진

04 사랑방 - (교역자/ 권재만 목사 /) 조장희 이재신, 김영화, 김영동 전경희, 허철영 강춘자, 김기환 차현주, 엄원식 박현주 조은경, 양기모 이명호, 옥대철 정미란, 정인수 박순옥, 권혁수 김미섭, 김원태 박은희, 이신재 정해자, *권태문 *최근실, *유정태 *이화원,

05 사랑방 - (담당/ 정재훈 전도사 /) 김병운 정영옥, 류기석 채복희, 오영옥, 석용범 박영선, 김종훈 장미라, 한태수 김순정, 조항민 최신혜, 안상호 조영희, 박정규 정진영, 윤연섭 이양숙, 정혜라, 최진우 정유정, 김영상 임미숙, 전진범 김지영, 한현정(승후), 조현경, 김영규

06 사랑방 - (담당/ 권재만 목사 /) 서병욱 임진숙, 한호남 정승희, 황창영 이종하, 진용용 우창숙, 공재규 권수현, 정연갑 이운순, 김은국 박민정, 유장호 김현나, 김남정 한상수, 남란숙, 윤선복(*이승조), *고현기 *안은환, *이일규 *박수연, *박현우 *정선영(인하) *박지인(태서), *박은희(채은, 채경),

07 사랑방
 홍슬기 전혜리, 이재훈 김다솔, 허 준 손민희, 최종곤 천현정, 김영명 한누리 양원준 박지은, 신수호 김혜연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53 : 5-6 인도자
3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23 인도자
146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가복음 15 : 16 - 39 설교자
151 사랑방
“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 정재훈전도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145 다함께
인도자
455(3) 다함께
설교자
정태일목사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창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이재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저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루신 그 순종을 닮아
저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예루살렘 입성 - 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군중은 '호산나!' 소리치며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온 성읍이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이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정화 - 월

예수님께서 철이 되지 않아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화려한 것들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모두 뒤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심 - 화, 수

예수님은 이들에 걸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논쟁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는 배반을 할 계획을 짭니다.

유월절 준비와 유월절 만찬 - 목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음식인 어린 양고기 대신에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갯세마네 기도와 무리에게 잡히심- 목, 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유다의 배신에 예수님이 사로잡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 금

잡히시자마자 바로 3번의 종교재판과 3번의 형사재판 끝에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심하게 매질 당하신 후에 너무나도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귀한 피 값으로 치른 따질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전도사 / 기도 : 정혜정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공동체 마당과 주변 산 그리고 좀 멀리 고모호수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돌썩 짝짓거나 한 줄 기차를 하고 길을 걸으며, 마른 덩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초록 풀잎들과 연두색 새순이 하루가 다르게 돌아나는 나뭇가지를 봅니다. 양지꽃, 할미꽃, 제비꽃, 진달래, 생강나무 꽃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매번 인사를 건넵니다. 췌, 재잘재잘 소리를 멈추고 지저귀는 새 소리에 다함께 귀를 기울여보기도 합니다. 졸졸 개울가를 만나면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나뭇잎 배를 띄워보고 손도 적셔봅니다.

냉이를 안 캐고 그냥 봄을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고사리 손에 호미를 움켜쥐고 공동체 밭에서 냉이도 캐었습니다. 한 움큼씩 가져간 냉이가 꾸러기들 집집마다 식탁 위에 올라 봄소식을 전해줬을 겁니다.

온 몸으로 봄을 맞고 있는 꾸러기들도 봄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예쁜 꽃은 우리 꾸러기들이지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학교는 매일이 새롭습니다. 어느날은 추웠다가 어느날은 모든 겂옷을 벗고 땀이 나기도 하는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은 여는 모임에 부모님께서 입혀주신 겂옷을 입고 왔다가 금방 벗어놓고 달는 모임때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날씨는 눈으로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땅은 점점 푸른 빛이 되어가고 가지에는 초록물감을 찍어 바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꾸러기들은 냉이를, 어린이들은 썩을 모읍니다. 식탁은 봄의 향내로 가득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깡통을 차면서도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 찾아온 봄이 기뻐 야외에서 수업하자 외치는 아이들, 아직 점심까진 시간이 남았지만 점심메뉴를 물어보며 배고프다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 눈 안에 채워줍니다.

< 교사 : 권재만 >

멋쟁이학교

지난 주일 각자 자기의 몸만 한 짐을 이끌고 멋쟁이들이 등교했습니다. 2주간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도 잠시 새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담임선생님 등등 새로움의 설렘으로 활기차게 생활했습니다.

등교를 하며 체육과 노작, 악기 수업, 열린 수업 등 온라인 수업 때는 하지 못했던 활동적인 수업들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열린 수업은 '멋쟁이 교양'으로 진행하며, 멋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교장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꿀같은 주말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개인에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적인 삶을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 주동안 생활합니다. 멋쟁이들과 교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장성아 >